



* 등급정보 (계란) *

▷ 25개 업체에서 생산한 4천113만4천개에 대한 등급판정 결과, 1등급 90.4%, 1등급은 7.1%, 2등급은 0.4%, 3등급은 2.2%를 차지, 전월대비 402만6천개(10.8%) 증가, 전년동기(19개 업체, 3천252만3천개)대비 861만1천개(26.5%) 증가, 금월누계는 3억7천713만7천개로 전년동기 누계대비 6천359만개(20.3%) 증가

계란 등급판정 개수 및 출현율

(단위: 천개, %)

종량 규격	계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개수	%	개수	%	개수	%	개수	%
'09년 1~11월	377,137	320,483	85.0	46,682	12.4	2,225	0.6	7,747	2.1
'09년 10월	37,108	31,779	85.6	4,469	12.0	46	0.1	814	2.2
'09년 11월	41,134	37,167	90.4	2,914	7.1	145	0.4	909	2.2
왕란	215	176	81.7	39	18.3	-	-	-	-
특란	30,307	27,577	91.0	2,527	8.3	90	0.3	113	0.4
대란	10,602	9,403	88.7	348	3.3	55	0.5	796	7.5
중란	10	10	100.0	-	-	-	-	-	-
소란	-	-	-	-	-	-	-	-	-

* 축산뉴스 (계란) *

‡ 알·알가공품 위생·관리감독 철저 당부

농림수산식품부가 무정란 등 부화실패란이 식용으로 불법 유통된 사건이 발생해 알 및 알가공품 위생관리에 대해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전란액, 난백액, 난황액 등 액란제품의 경우 식중독균 등 위해 요소에 취약한 점을 고려, 시설기준 적용, 가공기준 준수, 부화장 지도감독 등을 시도들이 적극 관리·감독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비살균 알 가공품만을 생산하고 있다고 해도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알 가공업의 시설기준인 ▲제조가공시설에는 검란기 ▲세란기 ▲파란장치 ▲살균시설 등의 알의 처리·가공에 필요한 장비나 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한 액란제품 가공기준에 따라 ▲부패된 알 ▲산패취가 있는 알 ▲공팡이가 생긴 알 ▲이물질이 혼입된 알 ▲혈액이 함유된 알 ▲내용물이 누출된 알 ▲부화중지한 알 등은 식용으로 쓸 수 없다. 비살균 액란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분변 등에 오염된 원료 알에 대한 세척 및 살균 조치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원료 알의 입고·사용에 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제품의 생산단위(롯트)별로 생산일자, 생산량, 판매처와

판매량 등에 관한 거래내역 서류도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 부화장에 대해서는 부화장에서 발생하는 ▲무정란 ▲사룡란 등 부화실패란을 이용해 식용목적으로 사용, 가공 판매 등의 행위를 금지토록 지도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 종란 납품가격 현실화 주력

대한양계협회 종계분과위원회(위원장 최성갑)가 종란 납품가격 현실화를 내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지난 12월 9일 양계협회 회의실에서 월례회의에서 지나치게 낮은 종란 납품가격 가격때문에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종란납품 협상단'을 구성해 가격현실화에 매진키로 했다. 분과위는 또 다각적인 통계자료를 제공해 농가수익을 높이도록 힘쓰고 ▲종계장 청정화를 위한 우수 종계장 인증사업 ▲표준사육계약서 작성 등을 내년 핵심사업으로 잡았다. 이 외에도 ▲통계자료 구축 사업 ▲종계부화분과위 대토론회 ▲종계장 종합평가 사업 ▲종계지부 활성화와 회원 배가사업 등을 펼쳐나갈 계획이다.